

# “4차혁명 주역 SW인재 영입·육성” IT사 경쟁 후끈

삼성, 신산업 핵심인재 대거 영입  
내년까지 AI 분야 1000명 채용

LG, SW 보안전문가 11명 선발  
코딩 등 다양한 사내 인증제도 운영

IBM, 교육부와 뉴칼라 인재 양성  
딜리버리히어로, 기술자 충원나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기 서울 캠퍼스에 입과하는 교육생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1회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 인증식’에서 LG전자 직원들과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왼쪽에서 일곱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IT업계가 소프트웨어 인재 모시기에 분주하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4차 산업시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소프트웨어(SW) 인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는 기존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으는 한편 사내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제도를 운영하거나 교육을 통해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AI 인재 10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 하에 인재 영입에 부지런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래 신사업 육성과 주력 사업 강화를 이끌 핵심인재를 대거 영입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 위구연 교수, 빅데

이터 분석 전문가 장우승 박사, 로봇 권위자 강성철 박사를 비롯한 마케팅 전문가 등 총 7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AI 분야 세계적 석학인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세바스찬 승 교수와 코넬테크 다니엘 리 교수를 삼성리서치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으며, 국내외에서 우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기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1만명의 청

년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2기 교육생 500명은 오는 5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을 시작해 6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달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 11명을 선발했다.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를 육성해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다. 올해부터 매년 보안전문가를 선발한다.

LG전자는 보안전문가 외에도 소프트웨어 코딩전문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소프트웨어 품질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 다양한 사내 인증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IBM은 교육부와 손잡고 지난달 P-테크 교육기관인 서울 뉴칼라스쿨을 개교했다. 신입생 52명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에 입학했다. P-테크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기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토대로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 2년을 연계한 5년제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IBM은 뉴칼라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와 함께 전문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지원하며, 전문가 특강, 유급 인턴십 제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모로

코, 호주,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P-테크 모델을 도입한 6번째 국가가 됐으며, IBM은 소프트웨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한국에서 우수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강신봉 대표는 최근 “지난해 연말 기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직원이 500명 정도인데 700~800명까지 확대할 것”이라면서 “특히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채용할 수 있는 만큼 제한 없이 충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음식 배달을 넘어 기술까지 겸비한 푸드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인재가 필수라고 생각해서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선정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소프트웨어 인재를 늘리는 데 힘쓰고 있고,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인재를 뽑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인재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실습이나 프로젝트 교육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스포티와 럭셔리 공존... 역시 ‘드림카’



###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디자인·퍼포먼스·주행감성 삼박자 갖춘 드림카.’

과거 운전자들의 ‘드림카’로 불렸던 이탈리아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가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최근에는 도로위에서 종종 만난다. 그러나 디자인과 퍼포먼스에 관심이 높은 고객은 물론 30대 초반의 젊은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드림카’로 꼽히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마세라티의 국내 판매를 이끌었던 스포츠 세단 ‘기블리’를 만났다. 지난해 마세라티 전체 판매량 중 약 35%의 비중을 차지했을 정도다. 시승 차량은 ‘마세라티 기블리 S Q4 그란루소’다. 기블리는 실용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량이다. 여기에 귀를 즐겁게 하는 배기음은 운전자의 심장을 자극시키 충분하다.

마세라티 기블리 S Q4는 그란루소(GranLusso)와 그란스포츠(GranSport) 트림으로 구성됐다. 그란루소는 스포티한 그란스포츠와 비교해 좀더 럭셔리한 느낌이 강하다. 기블리 그란루소로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도 평택까지 왕복하는 총 150km 구간에서 시승을 진행했다.

우선 디자인은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전면부는 공격적 디자인의 크롬바를 사용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마세라티의 상징인 삼지창 엠블럼을 품어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내부는 고급스러움이 묻어난다. ‘한뎀 한뎀’ 장인이 직접 바느질한 듯한 실크



마세라티 기블리 주행모습(위)와 실내 모습.

배기음만으로 운전자 심장 자극 깔끔함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삼지창 엠블럼으로 럭셔리 뽐내 안정된 주행감으로 질주본능 자극

스티치와 시트 헤드에 새겨진 ‘삼지창’ 엠블럼은 고가의 명품 의자에 앉은 듯한 느낌을 받게된다. 시트는 이탈리아의 유명 럭셔리 남성복 브랜드인 에르메네지오 제냐와 마세라티가 협업해 완성됐다. 제냐 패브릭은 천연실크 99%에 염료 1%로 이뤄졌다.

기블리의 진가는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압도적인 엔진음은 주변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기블리 그란루소는 3.0l V6 트윈 터보엔진을 탑재해 후륜구동 모델 대비 80마력의 출력과 8.2kg·m의 토크가 더해진다. 최고출력은 430마력이며

최대토크는 59.2kg·m이다.

가속페달을 밟으면 터질듯한 배기음과 함께 도로 위를 질주한다. 안정된 주행감은 초보 운전자들도 부담없이 운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 가속 페달에 힘을 주자 순식간에 시속 130km를 넘어섰다.

특히 속도를 높일수록 기블리의 매력은 배가됐다. 안정적인 주행감 때문인지 동승자는 계기반에 찍힌 숫자를 보고 놀라기도 했다. 또한 6기통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음은 8기통 자연흡기 엔진 배기음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아쉬운점은 국내도로에서 기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것. 마세라티 기블리의 판매가격은 1억 1640만~1억 4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시승차량(SQ4 GL)은 1억 4200만원 수준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아리아 전화해줘” SKT, 무료통화 서비스

‘누구 콜’ 출시, AI스피커·앱 활용

SK텔레콤은 ‘누구’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애플리케이션(앱)만 있어도 무료로 음성 통화가 가능한 ‘누구 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누구 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 스피커 간, 누구 스피커와 앱, 누구 앱과 앱 간 무료 VoIP 방식으로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VoIP란 인터넷전화, IP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디지털 패킷으로 변환하고 전송하는 기술이다.

누구 콜은 누구 앱에서 누구 디바이스를 연동(누구 스피커 없는 경우 생략 가능)시킨 후 보유 연락처를 추가하면

수발신이 가능하다. 단, 휴대폰 인증, 필수권한 및 약관 동의 등 설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발신 시 누구 스피커에 “아리아, 엄마에게 전화해줘”라고 말하면, 엄마는 누구 스피커와 누구 앱(스마트폰) 중 원하는 디바이스로 수신이 가능하다. 누구 스피커를 통해 받을 경우에는 “아리아, 전화 받아줘”라고 하면 된다.

누구 콜은 SK텔레콤의 ‘통화 품질 항상 처리 기술’을 적용해 2m 떨어진 거리에서 말해도 바로 옆에서 말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품질과 통화 음량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개인화 음성인식 모델을 적용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LG U+ 매장에서 5G 체험하면 사은품 증정

음악 시상식 입장권 등 제공

LG유플러스는 오는 15일까지 자사 1400여 개 매장 체험존에서 6대 5G 서비스를 체험하면 사은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 매장 내에 구축된 5G 체험존에서는 U+프로야구·골프·아이돌Live, U+VR·AR·게임 등 6대 핵심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내 서비스를 체험한 방문자에게는 추첨과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음악 시상식인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입장권을 750명(1인 2매)에게 제공한다.

또 LG유플러스 매장에서 5G 인증샷

을 ‘#갤럭시S10#U+5G’ 태그와 함께 고객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입장권을 250명(1인 2매)에게 제공하는 체험 인증 이벤트도 연다. 당첨자는 업로드 사진의 ‘좋아요’ 획득 수와 창의성, 해시태그 정확도 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일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교환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U+AR과 U+VR을 체험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연예인 청하, 차은우 브로마이드를 매장 보유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한다.

LG유플러스매장 체험프로모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체험 후 현장에서 매장 직원이 안내하는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